

# 다공에스앤티, 건물 시공 3D 설계...공사비 절감 효과

광주상의,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중·대형건설사 10개 이상 현장 적용...불법주차 단속 솔루션 개발도 상의 35곳 지원...33억4000만 매출증대·73명 고용창출 최대 실적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2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광주시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광주상의는 올해 35개 기업에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진출지원을 실시, 관련분야 33억4000만원의 매출증대와 73명의 신규 고용창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해당 사업 추진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다수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 공공판로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30여 억원의 공공조달 낙찰실적을 기록했다.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은 지역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업에 참여한 다공에스앤티(주)(대표 서한석)는 지난 10월 광주상의가 주관

한 유망기업제품 BtoB 홍보간담회에 참여해 지역 한 건설사와 BIM 프로그램을 이용한 철근물량 산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공에스앤티는 건물 에너지부하 최소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제로에너지 건축 최적화 솔루션 개발업체다. 클라우드 기반 철근 시공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건축과 에너지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공에스앤티의 '3D기반 BIM 솔루션'은 건물 시공 시 시공비용의 40%를 차지하는 철근설계 및 골조물량을 3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이용한 설계 및 물량산출로 공사비 절감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을 국내 중·대형건설사 10개 이상의 현장에 적용해 평균 3%의 철근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도 이날 소개했다.

또 다공에스앤티의 '에너지 AI-솔루션'은 2025년 제로에너지 인증의무화와 노후 건축물 에너지 개선을 위한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 개선, 건물 보안



광주상의에서 열린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참가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서한석 다공에스앤티 대표

시스템 구축 등 기술을 보유한 솔루션이다. 노후 건축물에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구축 사례를 비롯해 다수 현장에 해당 솔루션을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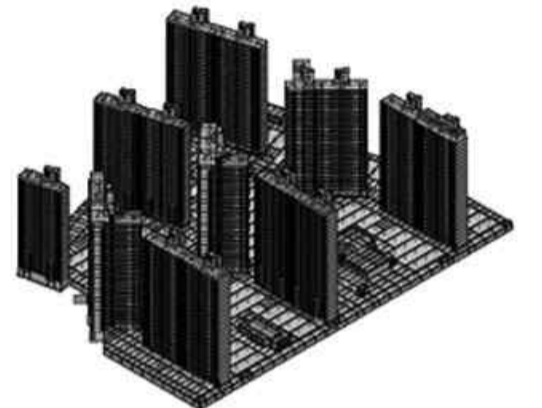
이밖에 최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서울에 지사를 설립해 수도권 소재 건설사와 업무협업 및 사업확장을 위해 노력 중으로, 추후 모바일을 활용한 아파트 불법주차 단속 솔루션을 개발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신 사업 확장을 위해 3D 기반 BIM 솔루션팀과 에너지 AI 솔루션팀을 새롭게 재편해 고

용을 창출, 솔루션에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1단계 신기술 융복합 도입 실태조사, 2단계 핵심기술 도입 FGI 간담회, 3단계 신기술 융복합 멘토링 세미나, 4단계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지원, 5단계 마케팅 및 판로개척지원사업 등 단계별 기업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기업들이 자사 주력제품에 미래 핵심기술을 융복합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사진=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3D기반 BIM 솔루션' 이미지.

## 내년 전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반영 줄줄이 오른다

한전, 4월부터 단계적 5.6% 인상 가정용 가스 10월 이후 4600원 ↑

내년 1분기 이후 전기·가스요금이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하며 잇따라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분기 요금은 동결됐지만 4월부터는 인상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린다.

또한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

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월 평균 주택용 304kWh를 쓰는 4인 가구 매달 1950원(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났다.

내년 5월부터 가스요금 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른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050원으로 16.2%(4600원) 인상된다.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이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최종적으로 현재보다 2.3원이 오른 단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는 2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다시 1340원이 증가한다. 10월에는 다시 800원이 늘어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보해양조 맛술과 맛있는 연말 보내세요"

푸드뱅크에 1200상자 기부 광주 소외계층에 순차 배분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요리용 맛술을 기부했다. <사진> 보해양조는 최근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광주광역시푸드뱅크에 2600만원 상당의 보해양조의 요리용 맛술 제품 1200상자를 후원했다. 이날 기부된 맛술 제품은 광주지역 내 17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 가정 등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2018년 출시된 보해 맛술은 가정용 500ml와 900ml 등 2종과 업소용 1.5L, 18L 등 4종의 제품이 판매 중이다. 주로 제육볶음이나 갈치조림 등 육류와 생선을 요리할 때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된다. 타사 경쟁 제품에 비해 쌀 함량이 2배 가량 높아 감칠맛을 높이는 효과가 뛰어난 게 특징으로 꼽힌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 고통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맛술을 후원하게 됐다"며 "보해 역시 매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탄소포인트 광주시에 기부한만큼 후원금 전달

광주은행이 광주시가 운영하는 '탄소포인트 기부은행'에 후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광주시는 27일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체결식에는 송중욱 은행장과 이용섭 시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이 기부한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후원금은 ESG 사업에 쓰여진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포인트로 환산해 광주시민에

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 포인트를 광주시(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금액만큼 광주은행이 후원금을 전달한다.

모인 시민기부금과 광주은행 후원금은 광주 도심에 '탄소포인트숲' 조성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광주시와 함께 '탄소은행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99.55 (-12.88)
↑ 코스닥	1011.36 (+3.94)
↓ 금리(국고채 3년)	1.776 (-0.022)
↑ 환율(USD)	1186.80 (+0.20)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